

치아교정, 언제 할 것인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임성훈 교수

성장 왕성한 청소년기 교정치료 최적

치아 이동 속도·안전성 유리
유형에 따라 치료 연장 가능
시간·비용 고려한 뒤 상담을

2016년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좋은 직업 1위는 치과교정과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인들이 교정치료를 받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매년 미국 전체 인구의 1%에 가까운 사람이 교정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교정치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청소년기에 교정치료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교정치료가 보편화돼 있다. 이 때문에 가지런하지 못한 치아를 가진 성인은 청소년기에 교정치료를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이 교정치료를 받는 경우는 성장기에 교정치료를 이미 받았으나 이후 치아가 약간 비틀어진 경우거나, 성장기에는 교정치료를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으나 성인이 된 후 자신의 힘으로 치료비를 벌여 교정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 간단한 교정치료를 사용해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이나 일본은 교정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적다.

그렇다고 미국인의 치아에서 유독 비틀어진 부정교합 등이 더 많아 치료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현상은 주로 문화적 차이와 의료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턱의 성장 조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낳았다 뺏다 할 수 있는 가철식 교정치료로 1차적인 교정치료를 한 뒤 완벽한 치아 배열을 얻기 위해 2차로 교정식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가철식 교정치료로 어느 정도 치아 배열이 개선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아 배열을 위한 2차적인 교정치료는 하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닷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의료 위주인 북유럽과 일반진료 위주인 미국의 의료 환경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북유럽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교정치료에 한해 공공의료로 치료받



임성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가 환자를 대상으로 치아교정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치아보철 치료까지 공공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공공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치료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입술 조직 결손으로 치아가 크게 비틀어지는 구순구개열 아동의 교정치료에 한해 보장된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구순구개열 아동의 교정치료가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될 예정이다.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은 후 '부정교합'이라는 소견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견서는 부정교합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소견서를 받은 보호자가 '부정교합'이 시급히 치료해야만 하는 심각한 질병인 것으로 오해해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부정교합 환자들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부정교합은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불편함과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부정교합의 유형에 따라 치료를 유보할 수도 있다.

다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치료를 지금 할 것인지 미룰 것인지의는 검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초등학교 시기 교정치료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 치과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성인기에도 충분히 교정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성인기에 교정치료를 하는 최적기는 아니며, 잠재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와 느린 치아 이동 속도를 고려해 치아 이동량을 최소로 절충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얼굴의 성장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시기에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치아 이동의 속도나 안전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성인의 경우 교정치료가 길다는 것 때문에 교정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교정치료가 단축하기 위해 급속교정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뼈에 약간의 외상을 가함으로써 골대사를 국소적으로 향상시켜 치아 이동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정치료가 단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얼굴 뼈의 성장이 가장 왕성한 때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다.

얼굴 뼈의 성장이 많은 시기는 키의 성장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와 어느 정도 일치하며, 이 시기는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와 일치한다.

대개 음모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성장속도가 가속되기 시작해 겨드랑이 털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성장속도가 절정을 이뤘다가, 소년의 경우 턱 부위까지 수염이 자라기 시작하고, 소녀의 경우 초경을 하고 나면 성장속도가 많이 감소한다. 임성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는 "자녀의 교정치료를 계획한다면 가능한 성장기에, 특히 성장속도가 가속되는 시기에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MRI 비급여 진료비용 최대 8배 차이

10만~80만원 천차만별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용이 동일한 검사에도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제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 따라 MRI 진료비용은 올해 4월 기준 가장 저렴한 곳은 10만원, 가장 비싼 곳은 80만원으로 차이가 70만원이나 됐다.

뇌 MRI는 가장 저렴한 곳이 16만원, 가장 비싼 곳이 82만7850원으로 5.2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경추(목부위)는 최대 4.9배, 요전추(허리부위)는 최대 4.9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대학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학교병원의 비급여 MRI 진료비용이 여러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비쌌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병원, 종합병원, 삼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동일한 MRI 검사 항목에 대해 '비급여'라는 이유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형수술 상담 80% "비전문의 수술 싫어"

'성형코리아'서 자격 확인

성형수술 상담자 10명 중 8명이 '비전문의에게 성형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형수술 환자 10명 중 6명은 다수의 비전문의 수술 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올해 7월 15~31일 사이에 성형외과를 방문한 고객 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형외과 수술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사 중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몇 배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37%(238명)에 불과했다. 모른다는 사람(63%·409명)보다 적었다.

전문가는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쳐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뜻한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비전문)에게 성형수술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77.7%(504명)가 "비전문의에게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18.5%(120명)는 "때에 따라 비전문의에게 받을 수도 있다", 2.8%(18명)는 "전문 또는 비전문의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코리아'라는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해 누구나 전문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병민 성형외과의사회장은 "성형외과를 방문한 사람들이 전문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치질 남성 60대·여성 20대서 최다 발생

치질 환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겨울철에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치질 진료인원은 1204명이었다. 성별을 구분하면 남성 1252명, 여성 115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60대가 10만명당 1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0대 1650명, 30대 1546명, 50대 1534명 순이었다. 여성은 20대가 1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482명, 50대 1454명, 40대 1354명 순이었다.

치질 환자가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는 겨울철이었다. 지난해 11월 진료인원은 6만9293명이었으나 12월에는 7만7024명으로 11.2% 증가했다. 2012~

2016년 월별 진료인원 평균을 계산하면 8만7712명으로 1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3월 8만5297명, 2월 8만5100명, 12월 8만588명 순이었다.

환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68만591명, 2013년 66만8928명, 2014년 65만5881명, 2015년 64만3231명, 2016년 61만1353명으로 4년간 10.2% 줄었다.

치질(치핵)은 항문 주변의 혈관과 결합 조직이 덩어리를 이루어 돌출하고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혈관이 확장하고 혈관을 지지하는 조직들이 늘어지면 치질 증상이 나타난다. 고령, 임신, 가족적인 특성, 만성 변비 혹은 설사,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식습관 등이 지질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강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입자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바라위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
	▶태양평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입자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입자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